

에도(江戸)시대 민중의 상업 윤리

-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세켄 데다이
가타기(世間手代氣質)』를 중심으로

고영란
(고려대학교)

I. 들어가며

일본의 에도시대(江戸時代:1603-1868)는 아래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

16-17세기를 경계로 하여 일본사회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였다. 그 전환을 가능케 한 힘(轉換力)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사회의 성립이었다.¹⁾

21세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소위 ‘경제사회’를 성립하고, 그 안에서 실과 득을 얻으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 갈등은 상업에 대한 개념 및 윤리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상업을 파악하는 역사와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987)

1) 速水融, 『근세 일본의 경제 발전과 근면 혁명』, 조성원·정안기 옮김, 혜안, 2006, p.220.

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 방편으로써 상업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제사회’를 성립시킨 경우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이 정착시키고 내재화 해 온 ‘상업 의의와 윤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한국 사회에, 나아가 인류의 경제사회에 참조할 만한 것인지 가늠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에도시대에 정착되고 내재화 된 상업 의의 및 윤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다수 있겠으나, 특정 위정자나 지식인층의 인식이 아닌, 다수의 서민 계층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은 문학 속의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민중에게 내재되고 합의된 인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도시대 문학 중에서도 특별히 서민 계층의 삶을 꺾진하게 그린 소설 우키요조시(浮世草子)²⁾에서 묘사되는 상업과 그 윤리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당대 서민 계층에게 정착되고 내재화 된 관련 의식이 무엇인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키요조시만큼 민중의 공감대와 인식을 반영하는 문학 자료도 드물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키요조시의 효시는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1642-1693, 이하 사이카쿠) 작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1682)이다. 그에 앞서 가나조시(仮名草子)라는 장르가 성립했지만, 이는 주로 권선징악의 교훈성이나 설화적 요소가 강하였기에 에도시대의 변모된 사회적 양상을 반영하였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³⁾ 그러므로 에도시대 일본사회의 변모된 양상, 특별히 조닌(町人:상공업을 업으로 삼은 도시 서민)으로 대표되는 서민 계층의 삶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2) 일본 가미가타(上方)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실주의적이고 오락적인 도시 상공인의 문학을 일컫는다.

3) 神保五弥他校注, 『日本古典文学全集37 仮名草子集、浮世草子集』解説, 小学館, 1971. pp.7-19. 岸得蔵「仮名草子とは、文学史的にいうと、室町時代の御伽草子のあとをうけて、西鶴の浮世草子に至るまでの、江戸時代初期約八十年の間に著作・刊行された物語・草子類をさす。(中略) 仮名草子というのは、漢籍・仏典などの漢文で書かれた本に対して、仮名本位のやさしい読物の意であり、文学的内容に則しての名称ではない。(中略) 仮名草子は概して文芸生の未熟な作が多かったが、その八十年間にわたる歳月の蓄積は、次に来る本格的な近世小説浮世草子以下各種の散文文学の開花のエネルギーの源であったのである。」

다면, 사이카쿠 이후의 우키요조시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이카쿠는 애초에 남녀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희로애락을 주제로 한 호색물(好色物)로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러나 그 한계에 부딪히며 조닌물(町人物)이라는 조닌의 일상을 소재 삼으며 집필 경향의 변화를 보였다.⁴⁾ 예컨대 치부담의 단편 모음집인『닛폰에이타이구라(日本永代蔵)』(1688)에서는 조닌의 치부(致富) 과정과 그 성패를 묘사하며, 서민 계층의 치열한 삶과 인식을 반영했다.⁵⁾ 이후 사이카쿠가 이용한 소재 및 문장을 답습한 작가 예지마 기세키(江島其磧:1666-1735, 이하 기세키) 또한 일련의 가타기모노(気質物)⁶⁾에서 조닌의 치부 및 상업을 종종 소재로 삼았고, 나아가 여타 우키요조시에서도 상업을 주제로 삼게 된다. 이렇듯 주로 서민 계층이 오락 삼아

-
- 4) 暉峻康隆, 『西鶴新論』, 中央公論社, 1981, pp.329-344. 「ことに『永代蔵』は、第二義的な消費的、享樂的な面に階級の存在意義を追求しようとした町人物の第一作であるという意味において、そのしめる位置は大きい。(中略)西鶴の創作態度は、文学思潮や文学評論や外国文学や出版ジャーナリズムの影響や要求のもとに執筆しつつある近代作家の場合とちがって、きわめて恣意的であり、かつ思想よりも現実(素材)そのものに憑かれて筆をとっている場合が多い。だから彼は、まづ何よりも描くことによって変化し成長するというタイプの、素朴なリアリストである。(中略)これは西鶴が、『一代男』では故意に目をそらした遊里の否定的条件に対して、目をひらきはじめたということである。」
- 5)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 『対訳西鶴全集 21 日本永代蔵』, 明治書院, 1984, p.212. 「このように『日本永代蔵』には、町人の勤勉・節儉・才覚によって産をなした話が少なくない。(中略)人間が真剣に金銭に取り組む姿を描いた作品である。理想よりも現実を重んじた西鶴が、こういう作品を産み出したのは当然のことであった。(中略)とにかく本書の出る前には、金を主題とした作品はなかった。本書を出発点として、次々にいわゆる町人物が現れたのである。町人文学の源流をなしたという点からいっても、特筆さるべき作品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 6) 인물을 유형별로 나누어 유형적 특성을 과장하고, 나아가 골계적으로 그린 단편모음집으로서, 당대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장르이다. 기세키에 의해 성립된 가타기모노의 가타기(氣質)는 위의 책, 『日本古典文学全集37 仮名草子集、浮世草子集』(p.342.)에 의하면, 다른 신분, 계층과 구별되는 특정 신분, 계층 특유의 성격이나 성향을 일컫는다.

읽었던 우키요조시에 상업이 종종 등장하는 바는 상업이 서민 계층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서민 계층의 관심사인 상업을 주제로 삼은 작품은 『닛폰에이타이구라』 이후 기세키에 의해 다수 집필 되었는데, 순차적으로 『아킨도 군파이 우치와(商人軍配團)』(1712)와 그 후속작의 성격을 띠는 『도세이 아키나이 군단(渡世商軍談)』(1713), 『아킨도 가쇼쿠쿤(商人家職訓)』(1722), 『세켄 데다이 가타기(世間手代氣質)』(1730)가 그에 해당한다. 『아킨도 군파이 우치와』, 『도세이 아키나이 군단』에 대해서는 줄고를 통해,⁷⁾ 첫째, 부(富)는 천운(天運)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둘째, 경제활동을 함에 윤리의식 보다는 치부의 결과가 중요하며, 셋째, 가업의 계승은 쉽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아킨도 가쇼쿠쿤』에 대해서도 줄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⁸⁾ 전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작품 속의 1, 2권에서는, 주로 가문(家) 내의 구성원들에게 ‘치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치부’는 일반적인 윤리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다만 ‘효행’만은 ‘치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작중에 노년인 작가 기세키 개인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한편 3, 4권에서는 가업 계승과 데다이(手代)⁹⁾의 상관성이 묘사되었는데, 데다이에게 ‘치부’의 중요성은 물론, ‘겸허함과 충성’이란 윤리가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가문 내의 구성원들에게는 일반적인 윤리보다도 ‘치부’를 강조했던 기세키의 인식은, 데다이를 향할 때는 차별적이라고 하겠다. 이는 작가 기세키가 데다이를 포함한 상인 일반의 ‘치부’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입지에 비추어 주인 가문의 ‘치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이어, 기세키가 본격적으로 상업을

7) 줄고,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축재(蓄財) 인식에 관한 소고(小考)-쇼토쿠기(正徳期)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88호, 2011, pp.81-92.

8) 줄고, 「에도(江戸) 중기 경제인식과 상인소설 소고(小考)-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46집, 2014, pp.169-186.

9) 일본의 에도시대에, 상가(商家)에서 주인에게 일정 권한을 부여받아 상업을 대신하는 종업원으로서, 위로 지배인 급인 반토(番頭), 아래로는 유소년의 종업원 뎃치(丁稚)를 두고 중간에서 실질적인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다른 마지막 작품 『세켄 데다이 가타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닛폰 에이타이구라』 이후 기세키를 통해 묘사된 서민 계층의 상업 인식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켄 데다이 가타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세가와 쓰요시(長谷川強)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에 의하면 대조적 두 인물의 대립 묘사를 특징으로 삼는 가타기모노의 경향이 본 작품에도 드러나고, 1권1장에서 2권2장까지 이어지는 일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일대기를 그린 『다이코키(太閤記)』의 세계를 각색함으로써 지다이모노(時代物:무사의 세계를 그린 역사극) 용성의 영향도 확인된다.¹⁰⁾ 또한 구체적 일화의 과장성, 실현 불가능성을 들어 “본서는 조닌물로서 봐도 현실의 조닌 생활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本書は町人物として見ても現實の町人生活を反映するものではないであろう。)”¹¹⁾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것이 『세켄 데다이 가타기』이다. 그런데 하세가와가 지적하는 일화의 과장성, 실현 불가능성은 주로 상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되고, 작중에서 역설되는 상업의 의의와 윤리 의식을 보면 과연 당대 현실을 떠나 논의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하세가와가 지적하는 작중 상업의 구체적인 방법에 주의하면서도 작중 묘사되는 상업의 의의와 그 윤리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닛폰에이타이구라』 이후, 상업을 통한 치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가던 당대 서민 계층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도래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교호(享保)시대와 상업

『세켄 데다이 가타기』는 교호시대(1716-1745)의 작품이다. 때는 바야흐로 교호의 개혁으로 유명한 8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가 재임한, 소위 에도 3대 개혁¹²⁾ 중의 첫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다. 서민에게는 검

10) 長谷川強, 『浮世草子の研究』櫻楓社, 1969. pp.478-481.

11) 위의 책, p.481.

12) 이후의 간세 개혁(寛政の改革:1787-1793), 덴포의 개혁(天保の改革: 1830-1843)과 함께 재정부흥을 위한 재정 및 정치제도의 개혁이다.

약 강조 및 증세가 강요되고 막부는 재정을 안정시키고 도시정책을 추진했던 시절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상공업을 업으로 삼는 조닌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으나, 그에 앞서 당대 막부의 상인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 일단을 막부의 방을 통해 살펴보자.

享保6 4月, 2088. 細工人共 町々 人形屋共

右之者共、菖蒲甲鍵長刀彩色之儀并人形無用之旨申渡候所、右之類最早仕込置候故、及難儀候段左様二も可有之事二候、こしらへ置候分は勝手次第商売可致候、新規仕候儀は最前可為定之通候、尤来年よりは此度相触候通、急度可相守候、若相背候もの有之候はば、吟味之上家職取上にて可有之候、四月¹³⁾

교호6(1721) 4월, 2088. 도심에서 제공하는 사람, 인형 파는 사람들 위와 같은 자들은 갑옷, 창, 장도 등에 채색하고 인형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자 그 물건들을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마음대로 매매해도 좋으나, 새롭게 만든 것은 이전에 정한 바와 같이 하고, 특히 다음 해부터는 방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반드시 매매하지 말고, 만약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단하여 그 가업을 몰수 한다. 4월.

享保9 2月, 2101.

米穀去年より段々下直二候所、其外諸色之値段高直二付、諸人及難儀候、酒酢醬油味噌類は米穀を以造り出し候物に候へば、米値段に可准儀勿論に候、(中略) 諸物之値段も米二准じ、下直二可売出道理候、(中略) 当年に至りても前々之値段之位を以商売候ば、過分之利徳を心かけ候ての事二候条、此以後値段引下ケ可申候、¹⁴⁾

교호9(1724) 2월, 2101.

쌀과 곡물이 작년부터 가격이 낮아졌는데 그 외의 상품 값이 오르니 많은 사람이 곤란해 한다. 술, 식초, 간장, 된장류는 쌀과 곡물로 만드니, 쌀

13) 司法省藏版法制史學會編, 『徳川禁令考』前集第5卷, 創文社, 1959, p.1016.

이하 번역문은 인용자에 의한다.

14) 위의 책, pp.1022-1023.

값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여러 상품의 가격도 쌀 가격에 준하여 내려서 파는 것이 도리에 맞다. (중략) 올해에 들어서도 이전의 가격으로써 매매를 한다면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니 이후에는 가격을 낮추게 하라.

첫 번째 방은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조년 계층으로부터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억제하고자 함이요, 두 번째 방은 쌀값 하락에 의한 상품 전반의 가격 인상 억제 및 과분한 이득 착취를 경계한 것이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사치 풍조를 막음으로써 위정자인 무사 계층은 조년 계층의 투자를 경계하고 이들의 성장을 저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방의 밑줄 친 부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이 명을 어기면 “그 가업을 몰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상인들에 대한 인식이 에도 초기부터 이러했을까? 그렇지 않음을 아래 방을 통해 확인해보자.

京都大坂諸法度 元和8 8月

諸商売之事、右諸国商人交易の自由之儀、諸人の要用也。¹⁵⁾

교토 오사카 금령 각종 겐나8(1622) 8월

상거래, 상인 여러 나라의 상인 교역의 자유는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明曆3 2039

一. 呉服屋 糸屋 綿屋 絹屋 物之本屋 紙屋 扇子屋 両替屋 鮫屋 薬屋 材木屋 竹屋 釘屋 槓屋 米屋 酒屋 肴屋 草屋 石屋 塗物屋

此外諸商売人中ケ間一同之申合を仕置候二付、新規之商売人中ケ間え入候者ハ、或大分之礼金或は過分之振舞為致候故、商売新規に企候者迷惑仕候、其上商物時としてしめうり致候由内々相聞候、并町中明棚有之所家主才覚を以棚借付候得は、中ケ間之者一味仕、其棚二障を申、棚仲間と相对無之者二ハ棚からせ不申候故、家主迷惑仕由其聞候、自今以後、一同之申合停止之事、¹⁶⁾

15) 司法省藏版法制史學會編,『徳川禁令考』前集第6卷, 創文社, 1959, p.1.

메이레키3(1657) 2039

일. 포목가게, 실 가게, 솜 가게, 비단 가게, 서점, 종이 가게, 부채 가게, 환전 가게, 상어고기 가게, 약 가게, 목재 가게, 대나무 가게, 못 가게, 땔감 나무 가게, 쌀가게, 술 가게, 생선 가게, 피혁 가게, 돌 가게, 칠 가게

이 외에도 상인 패(나카마) 일동이 서로 담합하여 신규 상인이 패에 들어가고자 하면, 많은 담례 금이나 과분한 접대가 필요하여 신규로 상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이 힘들어 한다. 게다가 상품을 때로는 독점하고, 더 붙여 가게가 비어 주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빌려주고자 하면 상인 패가 피하여 망해를 하니, 상인 패에게 허락받지 않은 자에게는 가게를 빌려줄 수가 없어 가게 주인이 곤란해 한다. 앞으로 상인 패 일동은 담합을 금한다.

一. 材木問屋 米問屋 薪問屋 炭問屋 竹問屋 油問屋 鹽問屋 茶問屋 酒醬油問屋

此外諸問屋是又一同仕、他国より参候船商人問屋え不着、すくに荷物売払候得は、其船之人重て問屋え不着候故、旅人迷惑致之由其間候、且旅人之勝手且ハ諸人之甘旁二候間、向後は船商人心次第二商売可為致候、一味之申合堅停止之事、

일. 목재 도매상, 쌀 도매상, 장작 도매상, 숯 도매상, 대나무 도매상, 기름 도매상, 소금 도매상, 차 도매상, 술 간장 도매상

이 외에도 도매상들이 담합하여, 타지에서 배로 상품을 들어오는 상인들이 도매상들과 거래하지 않고 바로 상품을 팔아넘기니, 그 뺏사람들이 거둬 도매상과 거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旅人=도매상, 배로 오는 상인이 아닌 제3의 상인)이 곤란해 한다고 한다. 상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형편과 여러 사람들의 의향에 의해, 향후 배를 타고 오는 상인들이 마음껏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매상들의 담합을 엄하게 금한다.

에도 초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 막부는 업종별 상인들을 들어 그들의 담합을 금지함으로써 신규 상인들이 업계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자유로운 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윽고 사

16) 앞의 책,『徳川禁令考』前集第5卷, p.1000.

치, 담합, 사재기, 투자 등으로 인한 가격 고등과 물가불안을 우려하며 상업 활동의 규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는데,¹⁷⁾ 본격적으로 사치를 금하는 것은 재정악화의 일로를 달린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의 5대 장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1646-1709)의 치세 하에서부터였다.¹⁸⁾ 그런데 막부에서 172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치, 담합, 사재기, 투자 등을 규제하는 방을 거듭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¹⁹⁾ 역설적으로 요시무네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재정은 안정되지 못하는 한편, 상인 계층의 현실경제에서의 득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18세기 현재, 반세기 이상 재정적 압박에 시달린 위정자 계층의 상인 인식이 긍정적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를 방증하듯, 당대의 저명한 유학자 오규 소라이(萩生徂来:1666-1728)가 1726년에 장군 요시무네에게 올린 정책 진언서『정담(政談)』에도 상인 득세의 부정적 묘사가 엿보이니, 이를 살펴보자.

とくに上下の困窮から、世の中の乱れが発生したという点は、昔も今も同じであるから、困窮が生ずる原因を、まず第一に研究しなくてはならない。困窮を救う方法として、べつに奇妙な術があるわけではなく、ただ古代の聖人のやり方の中で、今の世に欠けていることがある。それを見つけ出して、現状を改善するのが何よりの方法である。(中略)しかし天下を支配してお

-
- 17) 앞의 책, 『徳川禁令考』前集第5卷, p.1014. 「正徳3(1713) 5月, 2083, 一 女之衣類、自今以後、小袖之表一つに就て○上之御用之物は其代銀五百目を限り、万石以上之用之物は四百目を限り、其余は三百目を限り、それより高直の物一切に商売すべからざる事、」
- 18) 石井良助編, 『近世法制史料叢書第2 御當家令條:律令要略』, 弘文堂書房, 1939, pp.146-147. 「商売の輩、諸色一所に買置、しめうり仕べからず。併申合、諸事高直にいたすべからざる事」
- 19)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방이 지속적으로 붙었다. 앞의 책, 『徳川禁令考』前集第5卷, p.231. 「享保六年(1721) 諸商人諸職人仲ヶ間を究め月行事を相定候事 覚一 呉服道具書物類ハ不及申、諸商売物菓子類にても新規ニ巧出し候事、自今以後堅停止たり、若無抛子細有之ハ、役所江訴出、ゆるしを受可仕出事、一 商物之内、古来之通にて事済候処、近年色品を替、物数寄ニ而仕出し候類ハ、追而遂吟味、停止可申付候間、兼々其旨可相心得事、以上 閏七月」

られるからには、日本国中はみな將軍様の領地である。何もかもみな必要なものは直接にお用いになればよろしいのであって、買い上げるということはないはずである。(中略) 結局は値段も商人の言いなりになって、いくら高価でも急に必要な場合には間に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もみな武家が旅宿の境遇にあるからである。²⁰⁾

여하튼 상하가 곤궁하여 세상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곤궁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선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곤궁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특별히 기묘한 술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대의 성인이 행한 방법 중에 요즘 세상에 빠진 것이 있다. 이를 찾아내어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이다. (중략) 그러나 천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전역은 모두 장군님의 영지이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물건은 직접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들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중략) 결국 가격도 상인이 부르는 대로 아무리 고가라도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사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모두 무사들이 여숙의 경우에 있기 때문이다.

職人や商人がまた例の手癖を出し、利益を上げようとたくらむであろうから、その点の処置も講じ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 (中略) すべて商人というのは、高利むさぼって世渡りするものであるから、現在でも一夜で分限者になったり、また一日の間に潰れたりもするがこれももともと生活の根拠が不安定であるからである。 (中略) だから商人がつぶれることは、全くきかけする必要はない。²¹⁾

장인이나 상인이 항상 그렇듯 나쁜 손버릇이 생겨 이익을 올리려고 모략하기 때문일 것이기에, 그 처치방법도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원래 상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고리를 취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에도 하룻밤 만에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 사이에 망하기도 하는데, 이는 원래 생활의 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므로 상인이 망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0)尾藤正英, 『萩生徂來「政談」』, 講談社, 2013, pp.90-93.

21) 위의 책, pp.147-152.

위에서 소라이는 상품의 가격을 제멋대로 높게 부르는 유형으로서 상인을 묘사하고, 나아가 상인의 업인 상업의 이익이란 예외 없이 나쁜 손버릇에 의해 올리는 그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상인이 망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렇듯 상인에 대한 극단적인 견제 의식은 유가 및 무사 계층의 현실적 위기의식과 맞닿아있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유가 및 무사 계층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한 상인 계층은 우키요조시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Ⅲ. 데다이의 충(忠)과 상업의 윤리성

『세켄 데다이 가타기』에 앞서 기세키가 상업을 주제 삼은 소설은 한마디로 ‘치부 이상주의’를 묘사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작품들은 실존 상인의 영위와 인식에 문학적 윤색과 상상력을 더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등장하는 상인들은 ‘치부’에 매달리다 못해 집착하는 군상들이었다. 이렇듯 치부에 안간힘을 썼던 상인은 18세기 중반으로 향하며 막부가 그리는 재정 확보와 물가안정이라는 거대한 구도와는 길항 관계에 있다. 필연적으로 상인은 재정과 물가 불안에 영향을 끼치는 사치, 담합, 사재기, 투자 등을 하지 않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업을 영위해야 막부의 눈 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세키의 기존 상업 주제 소설은 윤리적 상업이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향은 『세켄 데다이 가타기』에서도 변함없이 전개되고, 그 서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龍のよく雲に昇るは其鱗たて髪あるにより鶴のよく天に翔(かけ)るはその羽翅(つばさ)あるによれり。其身家業に賢くとも助る手代(てがは)りなくして独撃鼓(ひとりうつづみ)は鳴ず。ねをよく出して商物の利を得るはその家の手代の働き一つぞかし。手代又旦那になれば又其手代、年功を積て旦那になり。次第送りの旦那に成て我を抱し主人の心を弃て恩を知るべし。手代の出世は己が勤にあり。私欲を専に心がける者は旦那の果

(くは)には至りがたし。此善悪(よしあし)の手代氣質集て直に題号とせり。善人(よきひと)は見て笑ひ悪(あし)き人は見て呵らん。免し給へ。 22)

용이 구름 위로 잘 올라가는 것은 그 비늘을 세우고 털이 있기 때문이다. 학이 하늘 위로 잘 올라가는 것은 그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업에 능통하다고 하여도 돕는 이(手代)가 없어서는 복이 올리지 않는다. 가격을 잘 매겨 그 이득을 얻는 것은 그 집의 데다이에 활약 하나에 달려있다. 데다이는 또 주인이 되고, 또 그 데다이가 연공을 쌓아 주인이 된다. 순차적으로 주인이 되어 나를 고용했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은혜를 알 것이다. 데다이의 출세는 스스로의 근면함에 있다. 오로지 사욕을 내는 사람은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 좋고 그른 데다이의 경향을 모아 바로 제목을 붙였다. 착한 사람은 보고 웃을 것이고 나쁜 사람은 보고 성을 낼 것이다. 용서하소서.

위에서 본 작품은 데다이의 경향을 모아 제목을 붙인 것이라고 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주인이 아무리 현명해도 가게의 이익을 실제로 내는 점원, 즉 데다이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가인 주인보다도 현장에서 뛰는 데다이야말로 가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을 드러나 있다. 나아가 가업의 흥망성쇠를 켜 데다이가 위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근면함으로써 주인택에 성실하고 사욕을 지니지 않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즉 데다이의 상업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닌 주인 가문을 위한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그 업을 다하면 이윽고 또 다른 주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보상의 장치도 고안해 놓았다. 이로써 상업은 고용인인 주인에게나 피고용인인 데다이 모두에게 윤리적이고도 경제적인 이로움을 안겨주는 영위가 된다. 이와 같이 데다이의 윤리성을 역설하는 위의 인용문은, 사실 상업의 의의 및 윤리वाद도 맞닿아있다. 현실 경제 활동에서 근면함으로써 상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데다이는 윤리적인 인물이고, 이와 같은 유형이 곧 주인이 되어가니, 주인과 데다이의 영위인 상업이 결국 윤리적이라는 논

22) 長谷川強他編, 『八文字屋全集 第11卷』, 汲古書院, 1996, p.49. 이하, 텍스트로 삼는다.

리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인 상업의 결과는 거부(巨富)를 낳는데, 본 작품에서 거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5권1장을 통해 살펴보자.

他国はさらなり、京江戸大坂三ヶ津に棟高き有徳人の町人、
根生の分限者ばかりにあらず。大かたは皆手代の宿ばいり、親
方の影にてそれぞれの商ひの道をおぼえ、家業に賢く持出して
大身代と成り。(中略)いにしへの系図だていふ程其身の恥に
して、(中略)主取りの吟味してよい所へさへ奉公に出せば、
立身とばかり思ふは、愚なる事ぞかし。金銀持丸長者の家につ
かへても肝心の身を持った時、博奕色狂ひに覺もなき銀を費
し、(텍스트 p.115.)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토, 에도, 오사카의 세 도시에서 큰 저
택을 지닌 거부인 조닌은 원래 부자였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은 모두 데다이로서 봉공살이를 했고, 주인님의 덕택에 각자의 상도를 배
우고, 가업에 현명하게 몰두하여 거부가 된 것이다. (중략) 옛날의 족보를
따지는 것만큼 창피한 일이 없는데, (중략) 주인님만 골라서 좋은 곳에 봉
공만하면 입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금은이 많은
부잣집에 봉공했다라도, 독립했을 때 도박, 색에 빠져 예상치 못한 돈을
쓰고,

위에 의하면, 요즘 거부는 남의 가게 데다이부터 시작하여 열심히 상업을
배워 독립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거부 또한 윤리적인 유형들로서, 무사 계
층이나 유가가 비난하듯 비윤리적인 유형이 아니라는 의식이 엿보인다. 물론
작중 3권3장에서는 횡재만을 바란 데다이, 4권3장에서는 자신이 주인인 냥
오만한 데다이, 5권1장에서는 색에 빠진 데다이의 쇠락을 묘사하며 윤리적
이지 못한 상인 유형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횡재’, ‘오만’, ‘색’과 같은
비윤리성을 지양하는 이유는 경제적 ‘쇠락’이라는 점, 환연하자면 “조닌의
족보는 금은에 의한다. 상업의 방법에 고하가 없다.(町人の氏系図は金銀
ぞかし。商ひの道に高下の位はなし。)”(텍스트 p.92)에서 드러나듯,
궁극적으로 상인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치부’를 위해서다. 그러면 왜

상인은 ‘치부’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1권1장의 아래 인용문에서 그 필연성이 드러난다.

古筆あふぎといふて売広めて、大分利を得たるを、(中略)町人は知行は得ず、何商ひにて成り共、金銀もうくるが思案第二。売人の人に増りて商ひせんと、油断なく持(かせぐ)と、武士の戦場に出て高名せんと心かくるが同じことにて、我は鎧の家なれば、鎧より外はつかはぬとて、川向ひにひかへいる敵を鎧がとどかぬとて見守りて計いるべきや。其時は鎧をすてて、弓を以て射落し、手柄をするが侍の肝心。商人も其ごとく何で成共金をもうけて、旦那へ奉るが手代の高名。(텍스트 p.59.)

옛 필체 부채라는 것을 널리 팔아 큰 이익을 얻자, (중략) 조닌은 봉록을 받지 않는다. 어떤 상업이라도 금은을 벌 생각이 우선이다. 파는 사람이 남보다 열심히 상업하는 것과 부주의함 없이 돈을 버는 것은 무사가 전장에서 나가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 같은 일로, 내가 창을 파는 가게라고 해서 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강 건너에 있는 적을 창이 맞지 않는다고 바라만보고 있을 소냐. 그 때에는 창을 버리고 활로써 쏘서 공을 세우는 것이 무사의 마음가짐이다. 상인도 그와 같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어 주인님께 드리는 것이 데다이로서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닌은 봉록을 받지 않는다.” 봉록 대신에 열심히 일하여 ‘치부’해서 봉록에 준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데다이의 경우는 봉록을 주는 주인을 위해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상업을 영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위에서 데다이 후지스케(藤助)는 아홉 살이란 어린 나이에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도시로 나오고, 열두 살에는 이미 모범이 될 만한 주인을 찾아 나선다.²³⁾ 이윽고 거부 미노야(美濃屋)의 점원이 되고자 현재의 주인 몰래 심부름 때문에 받은 돈으로 좋은 옷을 빌려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미노야로 간다. 때마침 미노야의 주인이 행상인이 가져 온 쨌베(煎餅)를 몽땅 깨트리

23) 텍스트 p.52. 「何とぞよい主を取って一奉公し、末にて出世すべき心ざし。十二には発明過おそろしかりき。」

행상인과 배상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다. 이를 지켜보던 후지스케는 깨지지 않은 센베 한 장의 무게를 달아, 깨진 가루의 무게의 총합을 달아 보고 비교하여 배상해 주면 된다고 한다. 그의 영리함에 감탄한 미노야의 주인은 곧바로 후지스케를 15년 계약으로 고용하고, 이후 후지스케는 상업에서 승승장구한다. 이와 같은 후지스케가 옷감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건을 팔아 주인 가문을 위해 돈을 버는데, 이를 정통적이지 않다고 동료가 나무라자 위와 같이 반론하는 것이다. “어떤 상업이라도 금은을 벌 생각이 우선”이고 상인의 영위는 무사의 그것과 다름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업에서의 결과를 내기, 즉 치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켄 데다이 가타기』에서 상업은 곧 무사의 영위와 동일하므로, ‘충’을 위해 행해진 그 어떤 치부도 용납되고, 그와 같은 치부야말로 상인으로서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라는 논리가 엿보인다. 후지스케와 같은 데다이는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 그 어떤 상술도 마다하지 않고 치부해줄기에 으뜸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듯 으뜸이 되는 데다이에겐 내재된 자세는 다름 아닌 무사의 ‘충’의 자세인 것이다. 뒤집어 놓고 보면, 주인 가문의 치부를 위해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세를 무사의 ‘충’이란 윤리로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데다이의 상업은 주인 가문을 위한 ‘충’이라는 표현으로 작중 거듭 언급되는데, 아래 3권 2장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武士は主君の御馬にて討死し名を揚げ、榮華を子孫に残せり。町人の手代、命こそは捨まじけれ。親方の身上潰る時は我世帯を打込て少分成り共主の役に立さふなものなれど、いかないな身代しもつれし旦那の門は通りても、見向きさへせず。却(かへつ)而主人をたわけものと嘲り誘る族(やから)世上に多し。(中略)然れば忠にはあらで不忠の手代、御家を眞実大事に思はれなば、自今以後盃を手にとられまじ。(텍스트 p.88.)

무사는 주군의 말에서 죽음을 당하여 이름을 드높이고, 그 영화를 자손에게 남기는 법이다. 조년의 데다이는 목숨까지는 버릴 수 없지만 주인님의 가문이 망할 때에는 자신의 가산을 팔아서 조금이나마 주인님의 도움이 되어야 하거늘, 신세를 망친 주인님 집 문 앞을 지나더라도 절대 쳐다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주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홍보는 이들이 세상에 많다. (중략) 그러므로 충을 다하지 않고 불충한 데다이인데, 만약 주인님 맥을 진실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술잔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

무사처럼 주군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와 같이 주인 가문을 위해 ‘충’을 다할 것이 데다이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데다이의 상업에 임하는 자세를 무사의 ‘충’에 비유하는 바는 기세키 작 초기 상인 주제 소설 『아킨도 군파이 우치와』와 『도세이 아키나이 군단』에서 이미 이용한 바 있다. 그런데 말년의 기세키가 또 다시 상업, 특별히 데다이의 상업을 무사의 ‘충’에 빗대어 묘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학적 운색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사 계층을 의식하는 조닌 계층의 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조닌의 상업이 앞서 막부가 붙인 방이나 소라이의 『정담』에서 보이는 ‘부조리한 이득’을 얻는 영위가 아닌, 각 가문을 위한 ‘충’의 일환이요, 무사의 영위와 다르지 않음을 전시하고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데다이의 치부는 곧 ‘충’과 동등한 것이기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독자의 합의를 얻어내고자 한다. 그런데 데다이의 ‘충’은 궁극적으로는 주인님을 위시한 가문을 위한 것이니, 가문을 위한 ‘충’에 반하는 것이라면 데다이는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過ゆき給ふ信徳公へ不忠になれば、今日よりこなたを此家におきます事は決してならず。”(텍스트 p.72.)

돌아가신 신토쿠님께 불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신을 이 집에 둘 수는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미노야는 주인 신토쿠(信徳) 사후, 유곽놀이에 빠진 아들 산시치(三七)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 다행히 충성스러운 데다이 후지스케 등의 기지로 가문은 유지되는 가운데 산시치가 다시금 유곽놀이에 빠지고자 하자, 후지스케는 도련님이 받은 유산만 쥐어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의 장면이다. 이처럼 최소한의 예는 차리되 가문유지를 위해 도련

넘마저도 내쫓을 수 있는 후지스케의 상업 윤리는,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정된다.

IV. 상업 윤리의 가변성

후지스케와 같은 ‘충’의 논리가 내재화되고 무장된 훌륭한 데다이의 이야기는 1권 1장부터 2권 2장까지 전개되고, 2권 3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

昔奥筋の武家につかへて三百石の身上、聊の仕損じあって御暇出、妻子をつれて少しの所縁を便りに、(中略)名も武休と改めける。世に住ば夢にも遊ぶ暇なく、万金丹合せて、けふをくらしぬ。(中略)其後は丸腰に成って武士の顔付きもせず、(中略)膏藥をねり出して是を売て、姿も心も町人になりぬ。内儀も歴々の息女なりしが、むかしを捨て、朝夕の米をかしき、(텍스트 pp.76-77.)

옛날 동북지방의 무가에게 종사한 삼백석의 녹봉을 받는 신분인 무사가 약간의 실수를 하여 쫓겨나서, 처자식을 데리고 나와 약간의 연고를 의지하여, (중략) 이름을 무휴라고 바꾼다. 속세에 사니 꿈에도 놀 여유가 없고, 만킨탄이라는 약을 조제해서 하루살이를 한다. (중략) 그 후는 평민이 되어서 무사인척도 하지 않고, (중략) 고약을 만들기 시작하여 이를 팔아 모습도 마음도 조닌이 되었다. 부인도 훌륭한 가문의 따님인데, 옛 모습을 버리고 아침저녁으로 쌀을 씻고,

위의 인용문은 무사에서 상인으로 쇠락한 가문이 속세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상인의 삶이 무사의 그것에 비해 결코 녹록하거나 여유롭지 않고, “꿈에도 놀 여유가 없고”, 성실해야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근면 성실하게 살던 두 부부는 “조닌과 사귀었던 아이들이기에 무사는 못 될 것이다.(町人に交たる子供なれば、武士は成るまじ。)”(텍스트 p.77.)라고 생각하여 두 아들을 상인의 집안에 양자로 보낸다. 두 아들

이 간 가게에 있던 데다이는 서로 성향이 달랐는데, 각기 그 성향 때문에 거래처에서 냉대를 받았다. 이에 양자로 간 형제는 피를 내어 데다이를 서로 바꾸어 장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각 가문에 이윤을 남겼다. 그럼에도 주인의 처가 데다이를 마뜩잖게 생각하자 데다이는 독립하여 승승장구하고, 막상 주인이 거래처와 거래코자 하니 성사되지 않는다. 이에 거래처와 직접 신용을 쌓는 것은 주인이 아닌 데다이이니 데다이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인정으로써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개된다.²⁴⁾ 흥미로운 점은 상업은 곧 ‘충’의 일환이라는 논리 바로 뒤에 ‘충’에서 벗어나 독립하고자 하는 데다이의 존재를 묘사함으로써, ‘충’을 관리하는 주인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상업은 ‘충’의 일환이지만 그 ‘충’은 언제든지 가변적인 것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영위라는 사실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하겠다.

‘충’의 일환인 상업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4권 1, 2장에서도 전개된다. 견사가게의 데다이 요로쿠베(与六兵衛)는 게이안(輕庵)이라는 인물과 큰 매매를 성사시켜 주인이 기뻐한다. 그런데 게이안에게 건네줄 견사를 실은 배가 난파하여 요로쿠베는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게이안도 대금을 치를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게이안은 집을 저당 잡히고 요로쿠베는 자살을 시도한다. 이를 알게 된 자상한 가게 주인은 요로쿠베를 용서하고 요로쿠베에게 요양을 허락하기까지 한다. 이후 주인은 교토에 부인의 요양 차 갔다가 요로쿠베가 요양하지 아니하고, 견사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격노한다. 요로쿠베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격노하는 견사가게 주인에게 건물주인 나무가게(薪屋) 주인은 “교토에 사는 나 같은 사람도 눈치를 채는데, 일본 제일의 항만(=오사카)에 살면서 눈치를 채지 못하다니, 좀 느슨하십니까.(京に住む我等さへはや此心付きまするに、日本の大湊に住ながら、此氣のつかぬは、ちと甘美(うま)ふはござります。)”(텍스트 p.107)라며 데다이의 거짓조차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무란다.²⁵⁾ 흥미로운 점은 이후에 “금은에 통달하여 돈 잘 버는 데다이는 계산을

24) 텍스트 p.81. 「親かた自身廻らず手代任せに売しに出す商ひは其廻る手代に得意がなじむ故、主人のままにもならぬ物なれば、手代に情深ふ目をかけてつかはねば、必自立の思ひ立てける物也心得べしと。」

25)鈴木浩三,『江戸商人の経営』,日本経済出版社, 2008, p.41.「このうち大坂

잘 하여 잘 쓰기도 한다. 우직하고 너무 검약한 젊은이는 이득을 얻기 어렵다.(金銀すぐれてもうくる手代は算用合せてつかふ事に賢し。律儀にかまへて始末過たる若い者は利を得る事に疎し。)”(텍스트 p.107.)라는 언설이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근면 성실함만이 치부에 연동되지 않으며, 요로쿠베와 같은 상업 윤리에 반하는 데다이가 반드시 부정적 유형으로서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심지어 상업 윤리는 아래와 같이 가변적이기도 하다.

さりとはぬけめのない御家の白鼠と出入りの唄が追従いふを、末の手代のまだ前髪跡の青き奴が吹出し、(中略)此際の払に金銭の相場一匁の手前にて一厘通り仕かけてやれば、百貫目の払高では一貫目の徳なり。こんな事には気づかず、一年中紙屑蠟燭の流れていんだとて何ほどの事があらふぞ。(中略)若輩ものには一ト器量ある奴、番頭に仕立て見たら主人を長者にするか、丸裸にするか、末での善悪は安部の清左衛門が占の本ひかへても見へぬ事と、申し侍りき。(텍스트 p.108.)

과연 불찰 없는 부자 덕의 흰쥐라고, 드나드는 할멈이 아부하는 것들 들은 아직 앞 머리카락 자국도 있는 어린 막내 데다이가 (우스꽝스러움에) 뺨으면서, (중략) 이번엔 지불할 일몬매의 백분의 일만 투자를 하면 백간매를 지불할 때는 일간매의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일 년 내내 휴지와 촛농이 아깝다고 아긴다한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중략) 젊은이 치고는 재치가 있는 놈, 반토가 된다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지 쇠락시킬지, 마지막 결론은 아베노 세자에몬의 점술의 책을 봐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들을 한다.

위에서는 우직함이 아닌 재치가 있어야 투자를 통해 치부할 수 있고, 그 치부가 가문에 대한 ‘충’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 환언하자면 근면, 성실,

は全国規模の集散市場として機能した。大名領を含む全国の生産地から物資が集まり、それが大阪市場で価格付けをさせられた。」일반적으로 오사카의 상인은 전국의 생산품을 흥정하는 대상인들이 다수였으니, 상업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직, 검약과 같은 기존의 상업 윤리가 치부를 위해서라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가변적일 수 있는 상업 윤리를 관리하지 못한 4권1, 2장의 견사가게 주인이었기에 나무가게 주인에게 창피를 당한 것이다. 결국 견사가게 주인은 요로쿠베로부터 150냥이라는 돈을 받고 데다이의 사기 행각은 없었던 일로 한다. 왜냐하면 데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나면 보다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업은 소문, 신용, 평판 등 즉물적인 요소 이외의 것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그 일례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V. ‘의(義)’로써 가능한 상업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리가 필요한 상업이지만, 한편으로 소문, 신용, 평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믿음 즉 ‘의(義)’와 관련된 요소에 의해 그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예컨대 3권 1, 2장의 데다이들은 과거 상거래를 통해 축적된 신용 덕분에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 일찍이 대여업으로써 거부를 이룬 가문의 아름답고 젊은 미망인에게는 아들 가메노스케(龜之助)가 있었고, 그녀는 남편 사후 흉흉한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 집에만 있었다. 다만 남편이 남긴 빚을 청산하고자 지배인 급인 반토(番頭) 다로베(太郎兵衛)와 세 번째 지위의 데다이 사부로베(三郎兵衛)를 불러 밀담을 나눈다. 이를 질시한 두 번째 지위의 데다이 지로베(次郎兵衛)는 아래 데다이들을 불러 미망인과 두 데다이의 관계를 의심한다. 사실 지로베는 술만 먹으면 비밀을 누설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이 버릇을 걱정하여 미망인이 지로베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지로베가 데다이들과 함께 두 명의 데다이를 쫓아낼 것을 상소하자 미망인은 괴소문을 염려하여 두 데다이들에게 남편의 유언대로 집과 자본을 나누어주고 독립시킨다. 이에 지로베는 가문을 위한 ‘충’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주인의 아들 가메노스케의 후견인으로서 또 다른 상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其上後家の御身なればとて、もったいなくも御主人の奥がた

を、二人入かほりに、戯れをつくす事、法外とやいはん。不忠不義の至り。(中略) 口上書を認(したた)め次郎兵衛始め残る八人の手代共、連判して、(中略) 蔵々の金銀諸道具を取出し、亀之助様を外の御家へうつし申、我々共後見して、別に商ひを仕る存念に相きはめ候と詞をそろへ申ければ、(텍스트 p.85.)

게다가 미망인의 몸이라고는 해도 지체 높으신 주인님의 사모님을 두 명이 번갈아가며 희롱을 다하는 것, 법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극히 불충불의 한 것이다. (중략) 상소문을 준비하여 지로베를 비롯한 나머지 8명의 데다이들은 연판장에 도장을 찍고, (중략) “창고의 많은 금은보화를 꺼내고, 가메노스케님을 다른 데에 옮겨 드리고, 우리는 후견하여 또 다른 상업을 전개코자 합니다.”라고 입을 모아 말씀드리니,

위에서 지로베는 상업은 어디까지나 ‘충’의 일환이요, 그 윤리성을 따르고자 하는 유형으로 묘사된다. 환언하자면 지로베는 가업을 관련 상인 전체의 영위로서 인식하고 주인과 점원의 예는 지키되 가업은 공동의 영위임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앞서 확인했던 후지스케와 다르지 않으나, 본 일화에 등장하는 다로베와 사부로베는 어떠할까? 다로베와 사부로베 역시 가문을 위한 ‘충’을 다하기 위해, 독립 후에도 지로베 몰래 쌀시장에서 투자를 한다. 다로베는 소심하였으나 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마침 쌀을 팔아 돈을 벌었고, 사부로베는 대담하여 쌀을 사들여 패가한다. 흥미로운 점은, 두 데다이가 경험도 없는데 쌀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 배경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元来(もとより)所にて名高き主人に久々旧功をなしたる手代共、此度大分の望姓(もとで)をもらひ、大屋敷迄申請たる丈夫なる内証を知りぬいている問屋なれば敷銀なくても此兩人は自由に市に立まじはりぬ。(텍스트 p.88.)

원래 그 지역에서 유명한 주인에게 오래토록 봉공해 온 데다이들이라서, 이번에 큰 자본을 얻고 저택까지 얻어, 든든한 자본을 지닌 것을 잘 아는 도매상들이기에, 예치금 없이도 이 두 사람은 자유롭게 선물시장에 섞일 수 있었다.

두 데다이가 독립 후에 쌀 선물 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인에게 ‘충’을 다했던 인물들이라는 신용, 즉 ‘의’에 의해서였다. 위의 쌀 거래는 하타야키나이(端商)라고 일컬어지는, 현물이 아닌 예상에 대한 투자요 거래다. 이처럼 거대 자본을 지닌 상인이 신용 하나에 의거하여 큰 거래를 이루고 치부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상행위 그 자체가 부를 이룬다기보다는 이제껏 구축해 온 신용이 치부의 또 다른 수단이고, 주요 요소임을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²⁶⁾ 이렇듯 상업은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넘어 ‘의’로써도 가능한 영위임을 위의 일화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지로베는 “신전, 금 광산, 쌀 선물시장, 연극(新田金山米市芝居事)”은 주인님이 금지한 것이라며, 거부가 된 다로베에게 “이 모든 충고는 고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가문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다로베 당신을 위해서이니,(是全偏執にていふにあらず、第一はお家の為、次には太郎兵衛が身の為なれば、)”(텍스트 p.87.)라며 쌀 거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데다이는 신용에 의한 쌀 투자에 의해 주인 가문을 회복시키고, ‘충’의 일환으로서 상업을 영위한다. 이와 같은 일화에서 엿보이는 인식은, 상업은 ‘충’의 일환이요, 동시에 ‘의’를 통해 가능한 영위라는 사실이다.

이렇듯 상업이 ‘의’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은 『세켄 데다이 가타기』의 마지막 일화 5권 2, 3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환전소(兩替屋) 도미쿠라야(富蔵屋)의 반토 소스케(惣助)와 또 다른 환전소의 반토 긴에몬(金右衛門)은 어릴 적 친구로서, 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몰래 도와주기로 약속했었다. 급전을 부탁하고자 하는 소스케에게 오히려 긴에몬이 도련님의 투자 실패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곤란에 빠진 두 반토는 기지를 발휘하여 두 집안의 혼사를 성사시킨다. 부자 가문끼리 혼사를 맺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두 가문의 재정적 위태로움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고, 이에 안정적으로 환전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지를 발휘

26) 앞서 하세가와가 지적하듯, 이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는 불가능했을 수 있으나, 신용에 의한 상거래를 설정한 작가 기세키의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한 두 반토는 “옛날보다 훨씬 풍족한 자산을 이룬 것도 바로 두 사람의 데다이가 충심으로 지혜롭게 일하여 얻게 된 돈 덕분이다.(むかしに増る内証となりしもひとへに兩人の手代が働き忠心の智恵袋に納る金銀.)”(텍스트 p.129.)라고 평가되어 ‘충’의 일환으로서의 상업을 영위한 유형으로서 추앙되기도 한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에 앞서 “무릇 환전업과 연극은 세간의 평판에 따라 번창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惣じて兩替と芝居は世間の評判次第で繁昌もする。倒(こけ)もする.)”(텍스트 p.128.)라고 언급되는 부분이다. 즉 상업이란 소문, 신용, 평판 등의 ‘의’에 의해 그 성패가 갈리는 영위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작품에는 상업은 ‘의’에 의한 영위의 일환이라는 사실 또한 드러남을 지적하고자 한다.

VI. 나가며

재정을 안정시키고 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막부는 검약이라는 미명하에 상업의 자유에 빈번히 재제를 가하였다. 유학자 소라이는 경제제민의 차원에서 상인 및 상업의 윤리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 모든 행위와 시각은 상인 및 상업에 대한 편견을 낳았고, 그 편견의 대상이었던 조닌이 그와 같은 편견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대 일본 경제사회 속 상업에 대한 편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조닌 스스로가 그 상업의 의의 및 윤리를 어떻게 확립해 갔는지 『세켄 데다이 가타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작품 분석의 결과, 조닌은 상업에 대한 사회적 견제에 자신들의 영위를 ‘충’이라는 논리로써 전시하고 내재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업은 ‘충’을 위한 영위이기예, 해당 가문의 치부의 결과에 긍정적이라면 기존의 상업 윤리는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상업은 ‘충’의 일환이라는 윤리적 전제 하에, 그 과정보다는 치부라는 결과가 중요하므로 기존 상업 윤리는 가변적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상업은 주인 가문 입

장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영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업은 실물경제의 범주를 넘어 인간의 ‘의’로써도 가능한 영위임이 묘사되며 그 가치는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영위의 수준을 확보한다. 즉물적인 범주를 떠나 형이상학적인 영위의 일환으로서의 의의를 지닌 상업이기에, 무사나 유가가 바라보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이 『세켄 데다이 가타기』에는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상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문학적으로 전시하고 내재화 한 문화적 행위의 일환으로서 『세켄 데다이 가타기』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기세키 작 상업 주제 소설과는 차별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기세키는 『세켄 데다이 가타기』를 통해 단순히 ‘치부 지상주의’의 상인 및 상업 묘사를 넘어 ‘충’과 ‘의’의 일환으로서의 상업을 부각시켜 상인의 영위가 즉물적인 차원을 넘어 형이상학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이로써 상업은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서민 계층과 공유하고 공명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작가 기세키가 상업에 대한 사회적 견제에 맞서 저항이나 극복 정신을 의도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세켄 데다이 가타기』를 통해 작가 자신을 포함한 조닌 계층이 인식하는 상행위와 그와 관련된 의식을 묘사함으로써, 무사 및 유가의 영위와 윤리에 대응하고 부합하는 상업의 가치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는 정도다. 그럼에도 당대 우키요조시에 나타나는 상업에 대한 가치 부여와 자기 합리화는 단순히 즉물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영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탐색의 단계에 이른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치부라는 상행위의 방법론적 탐색과 과정에 대한 반성과 고찰을 넘어, 이제 상업의 가치 탐색과 가능성을 조망하는 단계로, 그 인식과 사유의 진진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 기세키가 사이카쿠의 『닛폰 에이타이구라』를 답습하며 상인 및 상업 묘사를 지속하며 얻은 것은, 상업과 이를 둘러싼 여러 요소들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탐구를 넘어 상업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성찰과 확신으로 연동되는 문화적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고영란,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축재(蓄財) 인식에 관한 소고(小考)-쇼토쿠기(正徳期)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88호, 2011.
- _____, 「에도(江戸) 중기 경제인식과 상인소설 소고(小考)-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46집, 2014.
- 速水融, 『근세 일본의 경제 발전과 근면 혁명』, 조성원·정안기 옮김, 해안, 2006.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 『対訳西鶴全集 21 日本永代蔵』, 明治書院, 1984.
- 石井良助編, 『近世法制史料叢書第2 御當家令條:律令要略』, 弘文堂書房, 1939.
- 尾藤正英, 『萩生徂来「政談」』, 講談社, 2013.
- 司法省藏版法制史學會編, 『徳川禁令考』前集第5卷, 創文社, 1959.
- 司法省藏版法制史學會編, 『徳川禁令考』前集第6卷, 創文社, 1959.
- 神保五弥他校注, 『日本古典文学全集37 仮名草子集 浮世草子集』解説, 小学館, 1971.
- 鈴木浩三, 『江戸商人の経営』, 日本經濟出版社, 2008.
- 暉峻康隆, 『西鶴新論』, 中央公論社, 1981.
- 長谷川強他編, 『八文字屋全集 第11卷』, 汲古書院, 1996.
- 長谷川強, 『浮世草子の研究』, 櫻楓社, 1969.

❖ ABSTRACT

The Study of Idea about Business and the Ethics of Edo Era
through the Ukiyozoushi *Seken Tedai Katagi*

Koh, Young-Ran

This study is for understanding what is the significance and ethics of business in the Ukiyozoushi *Seken Tedai Katagi* written by Ezima Kiseki in Edo era.

There were many merchants called Tedai in *Seken Tedai Katagi*, and they worked for their owners and the family(家). Tedai thought the business was not for themselves. Their attitudes seemed almost same as the loyalty of chivalry to the lord, so the merchants themselves thought business was not so different from the chivalry's conduct. Then the merchants thought business ethics were changeable, because the result of business was more important than the process of business. If the merchants earned the money by unethical conduct, the business could be eulogized by case, because the earning money was not for themselves but for the owner and the family ultimately.

On the other hand, the business was also built up from trust, reputé, etc. in *Seken Tedai Katagi*. So the business was not only the hylic conduct but also the mental conduct for the merchants, then the idea showed the business was not the social ills.

In the Edo era, the chivalry and the Confucianists thought the business was social ills, so the merchants should build up the significance and ethics of business by themselves. *Seken Tedai Katagi* was the one of the cultural conduct to build up the significance and ethics of business of merchants', as we could see them in the stories.

Key Words

세켄 테다이 가타기, 의의, 윤리, 상업, 상인

Seken Tedai Katagi, significance, ethics, business, merchant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04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